

천상병 시인의 삶을 그린 연극 '소풍' 공연

의정부예술의전당 2월 2일부터 5일까지 소극장 무대에서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될 연극 '소풍'의 한 장면.

시(詩)적 대사와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을 느낄 수 있는 연극 한편이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막이 오른다.

연극계에 탄탄한 입지를 굳힌 극단 '여행자(연출 양정웅)'의 2005년 신작인 연극 '소풍'이 오는 2월 2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소설 같은 삶을 살다간 고(故) 천상병 시인의 시와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치열한 통찰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소설가로 오랜 활동을 해온

작가 김정조가 천상병의 시들을 아름다운 대사로 만들어 냈으며, 가수 박 환이 그의 삶을 그리기 위해 '귀천', '새', '푸른 것만이 아니다' 등의 대표시 10여편을 노래로 만들어 공연에서 라이브로 불러질 예정이다.

극단 '여행자'의 연출가 양정웅은 대사중심의 연극에서 벗어나 배우들의 신체와 미술, 음악성을 강조한 독창적인 스타일의 연출가로, 그의 예술혼이 녹아 있는 2005년 신작 '소풍'은 2005년 한국연극계가 주목하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입장료는 전석 2만원이며, 공연문의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 www.uac.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 031)828-5858로 문의하면 된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예술프로그램 장터 'APM 2005'

2월17일,18일 고양 덕양어울림누리에서

공민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사고파는 장터 '예술프로그램 마켓 APM(Arts Program Market)'이 오는 2월 17일, 18일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 덕양어울림누리에서 열린다.

예술프로그램마켓은 민간예술단체 및 개인이 출판한 공연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문화회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향유능력 신장을 위해 복귀기금으로 시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해 열린 제1회 APM 행사에서 60여개 부스 97개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전국 60여개 문화회관 관계자 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 253건이 거래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제2회 행사는 문화예술프로그램만 출판된 1회 마켓과 달리, 공연 프로그램 부문이 새로 추가됐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3주 동안의 공모를 통해 예술교육 93개, 공연 104개 등 총 197개 출판작이 선정됐다.

문화예술교육 부문에서는 지난해 마켓에서 매우 반응이 좋았던 '스쿨 클래식 시리즈' '제즈 스토리' 김덕수의 '전통문화예술 체험 콘서트' '한자놀이 놀자' '벌티미디

어 동화창작교실' 등의 출판작이 눈에 띄며,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이나 '축제기획워크숍' 등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출판작이 20여개로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강부자의 '오구', 극단 미추의 '허삼관 매월기', 학전의 '지하철 1호선' 등 모두 104개 프로그램이 출판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의 경우 전액 지원은 아니며, 프로그램의 규모와 시행 기간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비율을 정해 나갈 계획이다. 구매 한 프로그램은 빠르게 오는 3월부터 각 지역문화회관에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마켓에는 122개 지역 문화회관 관계자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프레젠테이션과 쇼케이스를 통해, 혹은 부스를 직접 방문하거나, 분야별 컨설턴트로부터 맞춤 조언도 들 수 있어서, 정보와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문화회관측에게는 안성맞춤의 장인 셈이다.

18일 2시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통과 아트마켓'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 마켓에 입장료는 따로 없으며, 문화기획자 및 학생 등 관심 있는 일반인도 참가가 가능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와 함께 기업들이 비영리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기업 소득금액 8%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경부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 손금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단체의 요건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중 비영리법인으로 구체화 했다.



지난해 8월 APM 2004가 열린 고양 덕양어울림누리 문화센터

문예진흥원 →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7월28일부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재탄생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구비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27일 공포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인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폐지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간자율기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재탄생한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현장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문화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전문적 예술 지원기구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 정책이 기금 관리와 배분 위주에 머물며,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문화예술위원회는 급변하는 문화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11인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 즉 문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각 분야의 인사가 고루 포함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 위촉으로 최종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집행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이다.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의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해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위원회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설립과 관련한 하위 법령 및 위원회의 정관, 각종 규정 등의 제정 작업을 준비하는 한편,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예술행정 체계 도입을 위한 각종 현안 사항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예술단체에 기부금 기업 소득금액 8% 인정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손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비영리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기업 소득금액 8%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경부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 손금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단체의 요건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중 비영리법인으로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예술의 전당, 국립오페라단 등 비영리법인에 기업이 기부금을 출연할 경우 기업은 소득금액의 8%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만 손금인정이 이뤄졌다.

재경부는 아울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부동산 가액에 2%를 곱해 산정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부동산 가액을 부실하게 평가한 감정기관을 관보에 공고하는 등 패쇄된 규정을 신선했다.

또한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인으로 조직 변경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연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특별기고 최중규 한국명문화회

乙酉年 “설”을 맞으며



최 중 규 한국명문화회장

오는 2월9일은 음력 2006년1월1일이다. 본지는 한국명문화회장이며 전 포천문화원 최중규 원장으로부터 '올유년 설을 맞으며'란 특별기고를 받아 게재함으로써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편집자주〉

설날의 의의(意義)

설날에는 차례(茶禮), 세배 등을 통해서 선조와 후손, 손윗사람과 손아래 사람끼리 혈연 중심의 상하관계에 따른 종적인 체계와 혈연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구실을 하였다.

설날이 십이지일(十二支日)로 연결되는 데에는 동신(洞神)에 대한 제사와 별신굿 등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로서 이웃 간의 활적인 유대와 사회적 화합과 지역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설"명절의 의미가 이어졌다.

우리의 "설"은 상하관계와 이웃관계 혈연의식과 지역적의식을 가다듬어 생선을 축진하고 사회를 결속시키고 소속을 재확인시켜주는 명절의 뜻이 가장 중심하게 나타나는 풍속이다. 1980년대부터 우리의 민족의 설은 실질적으로 부활하고 있었다.

한국 설과 일본 설, 양력 설과 음력 설, 신정과 구정 그리고 이종과제 등으로 억압된 중에서도 끈질긴 잠재력으로 전승되어온 민족의 "설"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설날의 행사(行事)

설날에는 떡국으로 차례를 올리고 어른께 세배를 하며 덕담(德談)을 들었다. 그밖에도 초하루부터 십이지일인 율리날까지의 일진(日辰)에 의해서 툇 날인 율모일(有毛日)과 툇 없는 날인 무모일(無毛日)로 나누어 설날이 율모일 때에는 곡식이 잘 익어 풍년이 들며 무모일 때에는 흉년이 든다고 전하여 진다. "동국세시기"에 보면 상해일(上亥日)과 상자일(上子日)에 궁중에서는 환관(宦官) 수백명이 햇불을 땅위로 이리저리 내자면서 "돼지 주둥이 지진다" "쥐 주둥이 지진다" 하였다. 이와 같이 옛날에는 연초에 간

지일(干支日)마다 심한 금기가 따랐으나 지금은 약화되거나 소멸되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로 맞이하는 한해'

'생산 촉진 · 사회 결속 · 소속 재확인'

"설"은 적어도 6세기 이전에 중국에서 태양 태음력을 받아들인 이후 태음력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설날이 제정되면서 중국에서 이행되는 연초의 의례들을 사회상층과 관리층에서 받아들여 원단(元旦)으로 이행(移行)시키면서 반례화(班禮化)하였으며 이날을 정초(正朝), 원초(元朝), 원단(元旦)이라 칭했다.

"설"이 언제부터 우리의 명절이었는지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중국의 사서 중에는 신라인들이 원일(元日)의 아침에 서로 하례하며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연회를 베풀고 일월신(日月神)을 배례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사에도 구대속절(九代俗節)의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조선초에서는 사대명절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설"의 고난기(苦亂期)

이러한 전통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설"이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설"을 빼앗기고 우리의 말, 우리의 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생각도 빼앗기고 우리의 민족문화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이때의 설은 양력설을 강요당했으며 우리의 고유의 설날은 관리들의 눈을 피해가며 제례행사를 하였다.

1945년 광복 후에도 양력이 기준력으로 되면서 양력설을 제도화 하고자 하였으나 민족문화란 어느 정도의 힘으로는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종과제라는 명목으로 다시 억제되어 왔다.

우리의 유구한 전통의 "설"은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설과 일본 설로 광복 후에는 크리스마스까지 끼어서 이중 삼중 과세의 명목으로 양력설과 음력설로 방황하다가 민의가 반영되어 1985년 비로소 민족의 날이라는 어실큰 명칭으로 부활이 되었다. 민족의 날, 농민의 날 등의 이름으로 이어지다가 전문화 자들과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 언론 매체를 통해 명칭의 타당성 여부가 꾸준히 논의되어 오면서 "민족의 날" 혹은 "설날"로 방황하였다. 1986년에 통계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83.5%가 음력과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9년 2월 1일에야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음력 1월 1일을 전후하여 3일을 공휴일로 지정, 시행하러도 과거에 양력 과제를 하던 공직자들도 대거 음력 과제로 되돌아 왔다.

법이나 제도가 관습을 앞지르지 못하는 바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21)

청덕사와 윤기경목사

예부터 목민관(牧民官)들은 청사에 길이 빛나는 청백리(淸白吏)로 선정(善政)을 베풀어 백성들에게 아버지 같이 추앙을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입신양명(立身揚名)과 부귀영달(富貴榮達)만을 꾀하고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는 분들도 많았다.

그러나 내 고향 포천 군내면 용정리에서 출생하여 진주 부민들의 추앙을 받던 윤기경 목사는 신북면 심곡리에 묘가 있어 목민관들의 귀감(龜鑑)이 되고 있다. 윤기경 님은 조선조 문신으로 1664년(현종5년)출생하여 1726년(영조2년 병오4월19일)에 졸하였는데 본관은 파평이고 호는 계안와(計安窩) 자는 장숙(長叔)이

다. 1699년(숙종25년)문과에 급제하여 진주목사(晉州牧使)를 역임하고 진주병마절도사(晉州兵馬節度使)로 재직 중 순직하셨다. 다시 말하면 문무(文武)를 겸비한 분이였다.

향상 청렴하고 성실하게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었기 때문에 진주의 군민들이 청덕사(淸德祠)를 세우고 님의 높은 뜻을 길이 고자 매년 제사를 지냈다. 님의 선정(善政)을 배푸심과 청백리(淸白吏)로서의 빛은 여기에 끝나지 않았다. 묘가 신북면에 있는데 묘 조성 당시 유생(儒生)들이 멀리 진주 땅에서 불러와 님의 죽음을 통곡하였는데 각기 입고 온 도로 소매자락에는 묘에

다 입힐 때가 있었다.

이 때는 천리가 넘는 진주 땅에서 진주부민들이 보낸 추앙의 뜻이 담긴 정성의 때었다고 하니 님이 얼마나 진주 부민들에게 사후까지도 존경과 숭앙(崇仰)을 받았던 목민관이었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각 고을마다 고을 입구에는 송덕비나 영세불망비 등이 즐비하다. 탐관오리들이 관을 치던 시절이나 때관래자를 일삼던 시절에는 현직 임관에게도 송덕비를 세우는 일이 있었었다.(부끄러운 줄 모르고) 요즘도 벼슬자리는 근처에도 가지 못 했던 천민 출신의 아들이 벼락부자가 되더니 그의 아버지가

죽자 그가 다니던 길에서 있던 진자 송덕비를 그대로 본 따서 '통덕랑 박○○의 비'라고 비석을 묘소 앞에 세워 웃음걸이가 된 일이 있었다.(포천에서) 아들이 운수업, 극장 경영, 사재업을 하여 돈을 벌었다고 하여 그의 아버지가 벼락감투도 분수가 있지 어찌 입금이 내린 벼슬을 사후에 묘 안에서 훔칠 수 있었더라 말인가?

윤기경 목사가 말로 문무를 겸비한 청백리로 목민관의 귀감이 되어 진주시민들의 존경과 숭앙을 받으며 영세불망(永世不忘)의 기념비적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내 고향 포천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국란을 당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진 청덕비도 복원되어 진주시민들의 존경의 뜻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자료수집에 협조하여 주신 윤형구 종손에게 감사하드린다. 윤기경 목사에 대한 사료 발굴에 노고하 컸음을 밝혀둔다.)

필자연락처 02-932-2434